

# ‘후순위’ 민주, 소수정당 참여 견인할까

12~13일 ‘비례연합 찬반’ 투표  
‘후순위 7석’ 배수진  
‘불참’ 정의당, 입장 변화 주목  
2주 내 비례 순번 배치 마쳐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더불어민주당이 12~13일 정당 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당 지도부의 회의와 의원 총회를 거치면서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상당 부분 형성됨에 따라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흐름이 잡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장당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법상 얻은 의석에서 하나라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며 “앞순위는 소수정당에 배정하고 뒷순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주장하는 구성원들은 미래통합당의 원내 1당 자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통합당이 1당이 될 경우 개혁 입법 과정이 무산되고

나이가 문제인 대통령의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전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과 공식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이 오는 26~27일이므로 그 이전까지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향후 관건은 다른 정당의 참여, 비례대표 의석 배분, 현역의원 파견 문제 등이다. 정의당은 ‘참여 불가’ 입장이 명확하지만 당원 일부에서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생당 내에선 바른미래당계 인사 반대 입장이지만 대한신당·민주평화

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이들 정당의 논의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더라도 병립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 외에 육심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후순위 7석 배수진’을 통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지키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례연합정당 참여 정당이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민주당의 비례대표 파견 범위는 유동적일 수 있다. 참여 세력이 다양할수록 구체적인 순번 배치 문제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당투표에서 앞 기호를 받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앞 기호를 받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에는 현재 5명의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이 이보다 앞 기호를 받으려면 현역 의원이 그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정의당과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파견은 더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민주당 입각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당적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옮겨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윤영덕, 월산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 방역 활동

#### 민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대면 선거운동 대신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를 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남구 월산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돌며 방역 활동을 했다. 또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의



료인들과 밤낮으로 대책 수립과 행정적 지원에 애쓰시는 관계 당국 담당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방역의 기술은 부족했지만, 조금이나마 주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방역 활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장병완 “코로나 추경으로 피해 조기극복 집중”

#### 민생당 동남갑 예비후보

민생당 장병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추경 및 재정 대책에 대한 대원칙을 밝혔다. 장병완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 각 주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 경제 침체와 국민 삶에 심대한 위축이 우려 된다”며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11.7조원의 추경예산안이 발의되고 추경의 조기 통과와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피해 조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중 필요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원 “에너지 융복합단지 추진 일자리 창출”

#### 목포 예비후보 등록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11일 목포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목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밟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경서부정비장, 수산식품수출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4000~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년간 금귀울래로 쌓은 신뢰와 중앙인맥과 경험 등 노하우를 살려 목포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목포에 의대 유치에도 플랜 B와 플랜C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까지 막아 다. 목포시민의 은혜 잊지 않고 목포 발전, 일자리 창출, 정권 재창출로 꼭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민주, 김홍걸·이소현 등 비례 21명 선정 안철수, 미래한국당 통합 제안 거절

20~30대 강세... 14일 중앙위 투표로 순번 확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여성 13명, 남성 8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희웅(44) 전 참여자치 21 광주지부 대표가 광주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의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여성 비례대표 후보에는 교통사고로 아들 테호를 잃은 이소현(37)씨,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양정숙(54)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포함됐다. 강경숙(52) 원광

대 교수, 김나연(25) 하나은행 계장, 김현주(29) 세무사, 박명숙(60)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박은수(25) 전국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백혜숙(53)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등도 선정됐다.

남성 비례대표 후보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5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권지웅(32)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상민(48)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민주당 영입인재 중에선 배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육금 주한베트남교회장이 탈락하고, 이소현 씨와 이경수 부총장이 통과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문 위생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제안한데 대해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러한 내용의 안철수 대표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누구를 만날 입장과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가 대구로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

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대구에서 안 대표를 만나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지금 삶과 죽음이 오가고 있다. 정치적인 만남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 대표는 추후에도 만남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귀국 직후부터 통합당으로부터 지속해서 통합 제안을 받아왔으나 거대 양당 구도 자체가 개혁대상이라며 이를 거절해왔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를 찾아 의사로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준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준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 후 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 ~ 사법)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암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명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0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0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니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조달우수제품/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 환경표지/ KS인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 동 광 266-1920 · 신 안 222-8171 · 용 통 433-1503	· 문 흥 266-1960 · 양 산 571-7658 · 우 산 433-1503	· 북광주 525-3761 · 오 치 266-7601
동구	· 남 광 675-5530 · 충 앙 222-9054	· 동 명 222-9054 · 충 장 222-8171	· 동 부 225-6001
남구	· 남 부 675-5530 · 송 아 675-6605	· 백 은 651-1833 · 진 흥 671-7276	· 봉 선 675-5530
서구	· 광 천 382-5788 · 운 천 376-7153 · 화 정 369-1625	· 상 무 372-2352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서광주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하 남 9556 451	· 월 곡 959-1920 · 광 산 944-0444	· 침 단 973-2900